

전주시 교통체계 '뚝뚝해진다'

시,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선정 국비 15억3000만원 확보

내년 25억5000만원 투입 교차로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등 나서

전주시가 주요 교차로에 사고 등 돌발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도로 소통상황을 안내하는 전광판도 확충하는 등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국비 등 총

25억5000만원을 투입해 주요 교차로에 지능형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핵심인프라 구축에 나선 방침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 교차로 CCTV 설치를 통한 돌발상황관리 구현 △도로상황 안내전광판 및 감응신호기 신설 △긴급차량 우선신호 부여를 위한 신호프로그램 개선 등이다.

먼저 시는 주요 교차로에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설치해 차선 및 교통흐름을 인식하고,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2차 사고를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능형 CCTV 시스템 영상 분석 자료를 활용한 교통 빅데이터 구축으로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미래형 스마트 신호시스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해당도로를 통과할 경우 우선 신호를 부여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시간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요 교차로 내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전파하고,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사람이 우선이 되는 사람의 도시 교통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모악산에 활짝 핀 꽃무릇

전북의 명산인 원주 모악산 도립공원에 붉은 꽃무릇이 활짝 피었다. 17일 원주군에 따르면 꽃무릇이 심어진 구간은 등산로 입구에서 대원사까지와 신선길 등 약 1.5km 구간이다. 25만본의 꽃무릇이 심어진 이곳은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시보건소, 미취학아동 대상 '아토피 인형극' 공연

전주시가 대기오염과 식생활 변화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미취학아동들의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미취학 아동 8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아토피 인형극 '아토피를 이겨낸 왕자님'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아토피피부염을 예방하고, 올바른 관리수칙을 친근한 인형극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공연은 오염된 환경과 인스턴트식품에 노출된 미취학 아들에게 올바른 청결 유지 방법과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에 대해 알려주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뮤지컬 공연으로 펼쳐졌다. 또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 레이저 쇼와 미술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아토피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00여 명에게 로션·크림 등 보습제와 병의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연중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요인이 증가하고, 소아 감염성 질환 감소에 의한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결혼 반대' 격분... 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2심도 징역형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반대하는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어머니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뉴스



한국 상한갈대재단(Korea Bruised Reed Foundation) 임원진이 17일 예수병원에 방문해 김철승 병원장에게 5928만5000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병원 발전 위해 써주세요"

상한갈대재단, 예수병원에 5928만5000원 후원

한국 상한갈대재단이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928만5000원을 후원했다.

17일 예수병원에 따르면, 한국 상한갈대재단(Korea Bruised Reed Foundation) 임원진이 이날 예수병원을 방문해 김철승 병원장에게 5928만5000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상한갈대재단(BRF, Bruised Reed Foundation)은 1987년 예수병원을 돕기 위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재단은 그동안 예수병원의 안 연구, 교육, 치료 후원과 2004년에 안치료 선행기금기 증, 2008년에 5천만원 발전기금 후원 등으로 예수병원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현재 예수병원 설대 위 전 병원의 막내 딸인 크리스틴 박사(Christine Seel Ritche, 허버드의대 교수)가 상한갈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 상한갈대재단은 2007년에 설립되어 장경원 원장(김제중앙외과), 김민철 전 예수병원 병원장, 박성광 교수(전북대 내과), 오길현 원장, 유영근 원장(효정내과), 서기항 원장(서기항치과), 이진홍 원장(이진홍내과), 이철호 원장(이철호 외과)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상한갈대재단 이사 오길현 원장은 "최근 예수병원이 김철승 병원장의 병원장 취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기독교 교계, 동문, 지역사회와 직원들의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 등이 더해지고 있다. 예수병원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병원을 도운 상한갈대재단도 예수병원의 더 큰 발전에 위한 후원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예수병원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김윤상 기자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사고 막는다

전주시, 11월 말까지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가 모든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시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는 첨단 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시는 법률 개정 시행 초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장치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치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치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서둘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부착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 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해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장치비용 지원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의 시·군(교통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775대 △특수차량 218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305대 등 총 1298대로, 이중 9월 현재까지 67.2%(87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향후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물협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대상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한다. /송효철 기자

검찰개혁지원단 출범... 10여명 규모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 과제 선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로 알려져 있다.

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

가 맡았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뉴스

버스정류장서 가방 훔친 80대 붙잡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8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정오쯤 전주시 완산구 모 버스정류장에서 B모씨가 가방을 놓아둔 채 버스를 기다리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사회복지인 전주서 '한마음'

시,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

전주시 사회복지사들과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17일 전주 비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병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과 김정석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과 비롯한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관계자, 사회복지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주시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정석)가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2부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증

진과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를 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20명에게 각각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을 함께 낭독하기도 했다.

이어진 2부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는 가타리스트 연주와 바이올린 합주, 팝페라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김정석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복지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라며, "행사에 참석한 사회복지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과 지혜를 한데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지난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로 정했으며, 전주시는 매년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농기센터, 곤충·버섯재배교육 실시

내달 11일까지 각각 4회

전주시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미래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과 신소득작물로 급부상한 버섯재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가 사전에 모집한 30여명을 대상으로 곤충과 버섯에 대한 기본적인 습득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향후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접목 곤충·버섯사업 가능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각각 4회, 16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곤충의 사육

부터 상품화 과정까지 곤충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고버섯 재배기술과 온라인판매, 생산 후 부산물 활용방안 등 버섯 재배 관련 전문기술 등을 배울 수 있어 새로운 소득자원으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과 융합해 다양한 소득모델과 상품개발이 가능한 신소득작물 교육을 통해 농업인 및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